1. 통일신라 행정 조직

정답 3

통일 후 신라는 삼국 유민을 흡수하고 중앙과 지방 조직을 정비하여, 신문왕 대가 되면 유교적 통치 질서가 거의 완비되었다. 5소경은 고구려와 백제, 가야 지역에 배치하여 구 세력을 통합하고 한편으로 회유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으며, 장관은 사신이라 하였다. 도독은 주의 장관이다.

2. 고려의 중농 정책

정답 1

광학보는 불교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개간시 일정 기간 조세 면제, 재해시 세금 감면, 농번기 잡역 동원 금지, 고리대 이자 법적 제한 등은 고려의 대표적인 중농책이다.

3. 조선 후기의 상업

정답 4

포구장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변사등록>의 자료이다. 비변사가 16세기 이후에 설치된 것임만 파악해도 고려의 화폐인 삼한통보와 시기적으로 배치됨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삼한통보는 고려 숙종 때 주조한 화폐이다.

4. 대한제국의 대한국국제

정답 4

대한제국에서는 1899년 대한국국제를 선포하여 황제 중심의 전제군주제를 천명하였다. 1 갑신정변 14개조 정강, 2 갑오개혁 당시의 홍범 14조, 3 독립협회 헌의 6조 관련 내용으로, 모두 왕권을 제한하는 입장이다.

5. 6.25 전쟁

정답 1

애치슨 선언은 전쟁 발발의 배경이다(1950.1.). 전쟁 직후 북한군의 남침으로 밀리던 남한군은 유엔의 군대 파병, 인천상륙작전, 서울수복으로 전세를 만회하였고, 이후 38선을 넘어 북상하자 중국군이 개입하였다. 이후 우리측은 1.4후퇴로 서울까지 밀렸으며, 7월경부터 휴전선 부근에서 고착상태에 이르러, 53년 7월까지 휴전회담이 진행되었다.

6. 1907년의 정세

정답 2

헤이그 사건을 구실로 고종이 퇴위를 당한 후, 순종의 명의로 강제 체결한 조약이 한일 신협약, 이른바 정미 7조약이다. 이 부속조항에 의거하여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었다. 모두 1907년의 일이다. ㄱ. 안중근 의거는 1909년에 있었으며, ㄹ. 13도 의군은 정미의병 당시 유생 의병장들이 조직한 단체이다. ㄴ과 ㄹ은 을사늑약(1905)에 대한 저항이다.

7. 우리나라의 농서

정답 2

고려 말 이암이 전래한 원의 <농상집요>가 우리 실정과 맞지 않음에, 조선 세종이 정초 등에

게 명하여 편찬한 농서가 <농사직설>이다. 이후 조선 후기의 변동을 반영하여 효종대에 신속이 <농가집성>을 편찬했으며, 사찬 농서로는 박세당의 <색경>, 홍만선의 <산림경제>, 서호수의 <해동농서>, 박지원의 <과농소초> 등이 대표적이다.

8. 영조대의 업적

정답 4

자료에 제시된 내용은 영조 때 실시된 균역법과 관련한 것이다(1750). 이 시기에는 숙종대부터 진행된 일당전제화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탕평이 실시되었는데, 탕평파 - 붕당을 없애자는 임금의 논리에 동의하는 세력 - 중심의 완론탕평에 그쳤다는 한계를 지닌다. 예송은 현종 대에 전개되었고, 세도정치는 순조 이후에 시작되었다. 단, 선지 1번의 일당 전제화가 영조대에도 없었던 현상은 아니나, '대두'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구분해야 할 것이다.

9. 조선 후기의 중인

정답 1

자료의 세력은 '의', '역' 등의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 중인이다. 그들은 철종 조에 국가에 집단 소청운동을 전개했는데(1851), 자료가 그 때 제시되었던 것으로, 하버드대학에서 발견된 '상원과방자료'이다. 2 백정이 1920년대에 전개한 운동이고, 3 조선 후기 향전과정에서의 신향에 대한 설명이며, 4 유향소 복설은 성종때의 일로 당시 양반층과 관련된 선택지로 볼 수 있다.

10. 정부 수립 과정

정답 3

(가)의 삼균주의는 1941년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강령으로 채택되었으며, (나)는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 이승만의 귀국에 맞추어 있었던 일이다. (라)는 1948년 7월 17일의 일이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말 그대로 건국을 준비할 목적으로 국내 중도 세력이 1945년 8월 15일에 조직하였다.

11. 고려의 사회

정답 4

향, 부곡, 소, 역, 진 등의 특수행정구역은 일반 군현(백정 거주지역)에 비해 부세 부담이 과중한 곳이었다. 향과 부곡은 농업, 소는 수공업에 종사하여 각각 조세와 공납 부담이 많은 곳이었으며, 역과 진은 노역 동원이 심했던 곳이다.

12. 조선 전기의 향촌 사회

정답 4

사림은 15세기 후반부터 정계에 진출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지방에서 <소학>과 <주자가례>를 보급하고, 중종 때부터 서원과 향약 등을 통해 지방 세력을 결집하여 향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향사례와 향음주례는 향촌 윤리 보급을 위해 사림들이 시행했던 향촌 행사의 일종이다. 4 양반 중심 조직이었던 동약을 촌락 단위로 실시하고 문중 중심으로 서원과 사우를 세우는 것은, 향전 발생으로 유향소의 권위를 빼앗긴 향촌 세력들이 동족마을, 동성마을을 만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13. 과전법

정답 2

과전법은 고려 말 공양왕 때 만들어진 토지제도이다. 공신전, 수신전, 휼양전 등 세습 가능한 토지 항목이 많았고, 이후 과전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세조 때 직전법으로 바뀌었다. 공음전은 고려 전시과에서 5품 이상 고위 귀족들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14. 동학농민운동

정답 4

교조신원운동으로 정치적으로 전환한 동학 세력이 고부 민란에 가담하면서, 1894년의 동학농민운동이 확산되었다. 고부관아 습격 후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한 농민군은 전라도를 모두 장악하고 전주성을 점령하였으며, 이에 청일 군대가 파병되고 화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조정에서는 교정청을 설치하여 자주적 개혁을 도모하였으나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우리에게 개혁을 강요하였으니 이것이 갑오개혁이다. 이에 농민군이 재차 남북접 연합을 이루어 2차 봉기를 일으켰는데,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15. 지증왕의 순장 금지

정답 2

지증왕은 순장 금지, 우경 실시 등을 통해 농업 생산력을 확충하는 한편, 일종의 한화정책을 통해 왕권을 강화시켰다. 이는 별도로 분리되어 실시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백성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면서 권력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순장 금지의 1차적 목적은 노동력 확보이며, 이는 결국 공민권의 확보라 할 수 있다.

16. 신석기 시대

정답 3

황해 봉산 지탑리, 평양 남경 유적, 가락바퀴와 뼈바늘 등을 통해 신석기 시대의 모습을 묘사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신석기 시대 안도 조개 무덤 유적 등에서는 흑요석, 투박조개 등이 출토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각각 백두산 지역과 일본 큐슈 일대에서 산출되는 것이다. 즉 이 시기에 원거리 무역이 존재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1, 2, 4 모두 청동기 시대에 처음 등장하는 현상이다.

17. 조선 전기의 중앙 정치

정답 3

붕당은 선조 때부터 등장했는데, 정치적 이념과 학문적 경향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성종 때 홍문관 설치로 완성된 삼사는 주로 언론 기능을 통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한 관서이다. 3. 정국이 급격하게 바뀌는 환국은 숙종 때부터 시작된 정치 현상이다.

18. 최승로의 시무 28조

정답 3

자료의 국왕은 성종이며, 건의문은 최승로의 시무 28조이다. 최승로는 유교적 정치 이념에 기반한 체제 정비를 강조하여 지방 세력을 중앙으로 포섭하고, 그렇지 못한 세력은 외관을 파견

하여 통제하도록 제안하였다. 유교 장려를 위해 국자감과 과거제를 정비하고 지방에 향학(향교)를 설치하며, 지방에 박사를 파견하는 등의 정책이 이때 이루어졌다. 1 정종과 인종 때, 2 현종 때의 일이다. 4 최승로는 광종 때의 과도한 연등회와 팔관회가 국가 재정을 잠식했다고 비판하였다.

19. 원효와 의상

정답 1

ㄱ은 원효, ㄴ은 의상이다. 두 인물 모두 통일 직후 신라의 불교를 통합하고, 한편으로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원효는 일심, 화쟁, 무애에 기반한 아미타 신앙 등을 이끌었고, 의상은 당에 유학하여 화엄을 배운 후 국내에 교단을 정비하고 부석사 등의 사찰을 건립하였다. 이어 원효와 함께 아미타와 관음 신앙을 이끌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의상은 진골 출신 승려로서 문무왕의 측근으로 활약하였다. 1 미륵신앙은 신라 상대부터 민간에 유행한 신앙이다.

20. 1910년대의 비밀 결사

정답 3

1910년대에 무단통치가 자행되면서, 국내 세력은 비밀 결사 형태의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표적인 단체가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으로 유생들을 규합하여 만든 독립의군부, 박상진이 1915년에 경북 혁신 유림들과 만든 대한광복회 등이다. 전자는 복벽주의를 지향했고, 후자는 공화주의를 지향하였다.